

지역 매아리

고창군 축사화재 예방책 마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한파 등 자연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축사 화재예방활동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반(4개반/12명)을 편성해 축사화재의 주요원인이 되는 누전차단기 설치와 작동여부, 정격 용량의 퓨즈와 규격 전선 사용여부, 유내·외 배선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및 월 1회 이상 점검 ▲정격용량의 퓨즈와 규격전선 사용 ▲과부하를 발생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한 개의 콘센트에 한개의 기구만 사용 ▲축사 내 배선 및 환풍기, 분전함 내 분전 및 거미줄 제거 ▲소화기 비치와 점검 등이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하여 긴급 연락망을 숙지해야 한다.

군은 올해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농가(200명)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지원조건은 보도 50%, 자부담 50%로 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경부안군향우회 신년인사회

재경부안군향우회(회장 조광제) 2018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300여 명의 향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조광제 향우회장을 비롯한 김종규 부안군수,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부안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고향의 정을 나눴다.

부안군은 신년인사회에서 부안오복마 실축제(5월 5~7일),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농특산물 판매 확대, 귀농·어·귀촌 등 부안군 현안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무미 근농장화사업 등을 홍보했다.

조광제 재경부안군향우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고향 부안이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해 지속적인 투자가 예정돼 있어 새만금 시대 중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고향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미래 명품 산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린다"며 "언제든 돌아가고 회귀하고 싶은 고향 땅 부안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관광지 조성 이상無 “청년이 살고 싶은 곳 만들 터”

시, 공정률 현재 90% 내년 3월 본격 운영

백제가요 정읍사를 콘셉트(concept)로 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16년 5월 가공식 이후 공사를 추진해온 정읍사관광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1월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에도 계획대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19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읍사 관광지는 조성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신정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한 21만5808㎡(약6만5000평)에 총사업비 314억원이 투입된다.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실화와 정해마을에 위치한 새암유물, 그리고 부부나무 등의 관련 자원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곳에는 가요 박물관과 한식 체험관, 저갯거리, 정읍사 여인집 등 건축물과 야외정원, 자연생태연못, 누각 등이 들어선다.

시설 중 특히 가요 박물관은 전국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감도

최초 가요박물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건축 연면적 약 1517여㎡에 전시실 3개소와 홀 및 휴게실 등이 갖춰진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의 우수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실화 속 주인공인 망부석 여인의 고고지순한 사랑과 백제시대 평민의 삶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각 나라별, 시대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올해 3월까지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마치고 8월까지 가요박물관 전시와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요 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의 이미지를 벗어난, 현대적 감각의 상시 오픈형 체험프로그램 공간으로 구성된다. 외부 관광객과 오디션 참여자의 지속적인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운영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읍사(井邑詞)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가요 발상지로서의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며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는 가요박물관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인구절벽 돌파구 청년정책 수립 추진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청년문제 해결과 인구 증가를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호남지방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통계'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청년통계'는 호남지방 통계청과 군이 협조해 고창군 내부 행정자료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외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 자료 등을 연계·결합해 맞춤형 청년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고창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미만 젊은 층의 12.6%가 이주계획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들이 고창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는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54.7%)와 뒤떨어진 육아와 교육환경(12.6%)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고창'으로 만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 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한 청년통계 추진과 더불어 청년정책 조례를 제정해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종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증가를 위해 모든 계층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고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인식도 조사와 인구정책 특수시책의 지속 발굴을 통해 인구절벽시대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도농교류 활성화 팔걸어

서울 동대문구와 우호협정 체결 원-원 전략 모색

부안군이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협정식에는 김종규 부안군수, 오세웅 부안 군의회 의장, 유덕 열 동대문구청장, 주정 동대문구의회 의장 및 김남길 부의장, 양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발전 및 상호교류를 통한 원-원 전략을 모색했다.

양 지자체는 이날 협정에 따라 경제·사회·문화·교육·관광·체육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주민들의 화합과 친선을 위한 민간단체 교류 확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시책 공유,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교류 등을 통해 양 지자체간 경제적 이익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농촌의 균형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광·축제 상호

참여, 농·특산물 전시 및 직거래 등 상호협력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한국과 학기출연, 산업연구원 등 8개의 전문연구소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이 있어 명실상부 교육의 중심지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이다.

또 우리 나라 대표적인 한약거래 중심지로 전국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약령시장, 국가지정 문화재 선농단, 청통문화재, 세계 거리축제공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명품 문화도시이다.

김종규 군수는 "이번 동대문구와의 협정 체결은 우호협력 증대, 민간교류 확대,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 등 지자체간 공동발전과 경제적 이익도도 등 양도시간 새로운 블루오션을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신청하세요”

정읍시, 3월 30일 마감

정읍시가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이하 여성생생카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생생카드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와 문화·건강활동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반복적인 농작업 활동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여성 농업인들의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와 함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오는 3월 30일 마감이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 이상~만 70세 미만(단, 결혼한 만20세 이상~만24세 지원 가능), 가구 당 농지 소유면적

(세대외 합산)이 5만㎡ 미만(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어업)인 여성 농업인이다.

생생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는 4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규모는 1억5000만 원이다. 농협시지부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다.

관광 여행사와 스포츠용품,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점집방,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 25개 업종, 780 점포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열악한 문화생활과 농업·농촌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정읍시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에, 산림분야 7개 분야 125개사업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신청 요령 등을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12일까지 접수한다.

2019년도에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에서는 신청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한 후 분야별 관련 부서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구성, 신청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3월 중에 전북도에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